

Q

안녕하십니까?

월간양돈을 애독하며 돼지를 기르고 있는 농촌 청년입니다.

양돈경영에 있어서 여러가지 궁금한 점이 있어 질의응답란을 노크해 봅니다.

돼지에 각종 백신 접종후 24시간 전에는 항생제 투여가 금기로 되어 있는데, 만약 그렇다면 그 이유를 알고 싶습니다.

또한 돈사내를 생석회로 소독하고 있는데 정확한 소독효과와 생석회 사용방법, 생석회를 사용하면 먼지가 나는데 호흡기에는 지장이 없는지요?

자세하게 알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경북 청도군 이서면 배희수>

A

돼지에 각종 백신을 접종한후 24시간 전에 항생제 및 항균제 투여를 금기하는 것은 모든 백신에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특정한 백신에 한합니다.

즉, 항생제에 감수성이 있는 “생균백신”에 한합니다.

현재 돼지에게 사용되고 있는 백신중 생균백신은 “돼지 단독백신” 뿐입니다.

돼지 위축성비염(AR)이나 유행성폐염(SEP), 대장균증 및 흉막 폐염 등의 세균성 백신이 시판되고 있으나, 이들 백신은 모두 생균백신이 아니고 사균(불활화) 백신이니 항생제 투여와 관계가 없습니다.

오히려 다른 병원성 세균을 사멸시켜 백신의 효과를 높일 것입니다.

생균백신 접종시에 항생제 투여를 금기하는 이유는, 접종된 생균백신이 돼지 체내에서 증식하여 면역력을 잘 형성하여 예방의 효과를 나타내게 되는데, 항생제를 주사하거나 먹이게 되면 체내에 흡수된 항생제가 혈액중에 잔류하고 있으면서 면역원이 되는 접종된 백신세균(생균)의 증식을 억제하거나 사멸케 합니다.

돼지 콜레라나 일본 뇌염, 전염성 위장염(T-GE) 및 파보바이러스 백신 등은 생독 백신이지만, 이들은 바이러스이며 항생제에 대하여 감수성(효능)이 없으므로 상관이 없습니다. 또 귀하는 돈사내를 생석회로 소독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최근 돈사의 바닥이나 벽의 소독에 많이 쓰고 있습니다.

퇴비나 분뇨 탱크, 운동장 등의 소독에도 많이 이용되고 있으며 이들의 소독 목적에는 생석회를 바로 산포하기도 하지만, 돈방 소독에는 물을 타서 소석회로 만들어서 사용합니다. 돈방을 일반 소독약으로 소독을 하고 생석회로 소독을 하면 더욱 효과적입니다.

생석회의 사용방법을 분만돈방의 소독을 한 예로 하여 설명하지요.

분만돈방의 청소와 소독은 분만 예정일의 2주전쯤에 마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날씨가 좋은 날을 택해 먼저 깔짚을 들어내고 천정은 물론, 창틀의 먼지나 거미줄을 털어내고 물로 깨끗이 이들에 걸쳐 2회정도 바닥은 물론, 벽도 씻어내고 동력분무기를 이용하여 천정, 벽, 바닥면의 순으로 일반 소독약을 충분히 분무합니

다. 아마 평당 5ℓ 이상의 소독약액을 사용하면 충분할 것입니다.

소독약이 잘 마른 후에 생석회 소독을 합니다. 생석회는 2배량(생석회 1에 물 2) 물로 녹이면 물이 펄펄 끓으며 녹아서 석회, 즉 소석회가 됩니다.

이것을 바로 부러쉬로 돈방의 벽과 바닥에 바르면 됩니다. (1-2mm 정도)

이는 소독의 효과 외에도 바닥 콘크리트면을 매끄럽게 하여 어린 새끼 돼지의 찰과상을 막아 코리네균증 등의 세균 감염을 예방하는 효과도

있습니다.

생석회를 바른후 완전히 마른 후에 분만돈을 입주시켜야 하는데, 완전히 마르기까지는 맑은 날은 3-4일, 비오는 날은 약 7일 소요됩니다.

생석회 자체는 피부를 부식시키는 등 독성이 있고 흡입하게 되면 호흡기 전막을 자극하여 염증을 일으키는 등 독성이 있으나, 물을 가하여 소석회화 해서 쓰게 되므로 먼지로서 흡입하는 정도로서는 큰 피해가 없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응답: 가축위생연구소 김용희 박사〉

正藥院은 약만을 팔고자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가축의 질병을 압니다.

우리는 약을 압니다.

우리는 사양관리를 압니다.

- 정약원은 거래처에 빠른 정보의 제공을 위하여 20메가바이트의 대용량 컴퓨터 시스템을 도입하였습니다.

- 국내의 유명약품 도소매
- 가축약품 판매업소 개별상담
- 농장개설에 따른 설비
농자축구입, 방역계획상담



동물약품 正藥院

1710-□□경기도수원시매교동 25-7

TEL. 32-1250